사명대사 유묵, 400년 만에 오대산 돌아왔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조직해 활약했던 승병장이자 외교관이던 사명 대사 유정(1544-1610)의 친필 유묵이 400년 만에 사명대사가 주석했던 오대산에 모습을 드러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10월 4일부터 관내 1층 특별전시실에서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佛心宗祖達麼圓覺大師)'라고 쓰여진 사명 대사 유정의 친필 유묵(遺墨)을 첫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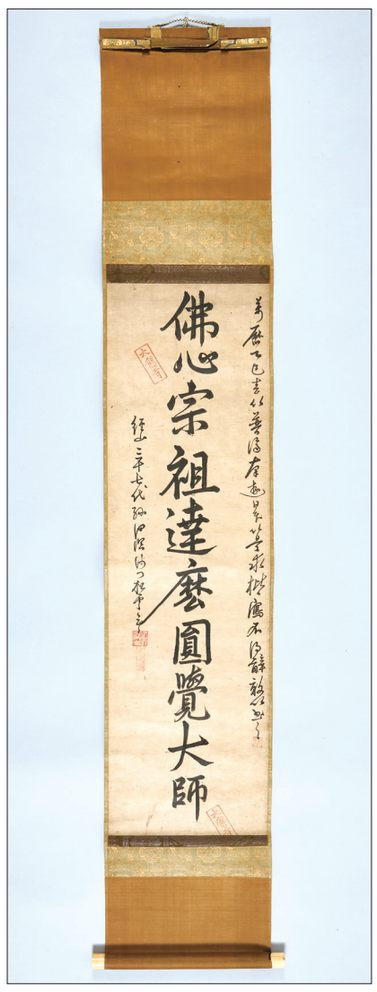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이전인 오대산사고(영감난야)에서 5년 여간 주석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설치된 오대산 사고의 입지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스승인 서산 대사와 함께 오대산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묵은 가로 30cm, 세로 120cm 가량의 반 가리개 족자 병풍 정도 크기로, 사명 대사가 1605년 임란 직후 대일(對日) 강화 사절로 일본 교토에 파견됐을 때, 일본 현지 스님에게 써준 글로 추정된다. 해서(楷書·한자 서체의 하나)와 행서(行書)로 쓰여져 각기 날카로우면서도 거침없이 쓴 필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명 대사 유묵은 불교계 명필로 '이난(二難)'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일본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한 독지가의 기증으로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하게 됐다.

유묵 중심에 쓰인 '불심종(佛心宗)'은 선종을 가리키며, 조(祖)는 조사(祖師)를 의미한다. 원각 대사(圓覺大師)는 당나라 대종(代宗)이 달마 대사에게 올린 추존시호(推尊諡號)를 뜻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귀환
10월 4일부터 국내 첫 공개
교토 파견 당시 쓴 것 추정
같은 날 기념 학술대회 열려

글 오른쪽 부분에는 "만력(1605년) 을사년 봄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남쪽 일본에 와 있을 때 해서 글씨로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를 써 달라고 요구하기에, 사양할 수 없어 감히 쓴다(萬曆乙巳春 以普濟 南遊日本, 以是求楷寫, 不得辭, 敢以書之)"고 쓰여있다.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佛心宗祖達麼圓覺大師)' 라고 쓰여진 사명 대사 유정의 친필 유묵.

왼쪽엔 '달마의 37대 손 사명사문 송운(徑山 三十七代孫 泗溟沙門 松雲云云)'이라고 이름과 지위를 적고, 낙관을 새겼다.

사명 대사 친필 유묵 귀한을 기념해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부설 (사)화엄선연구소(소장 향산 스님)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오대산과 사명유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의 환영사로 시작된 학술대회에서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사명 대사 송운 유묵 고찰-사명 대사 송운의 유묵 400년 만에 오대산 월정사로 귀환'을 주제로 유묵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월정사와 사명유정'을, 김풍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시승에서 선승으로'를, 월정사 만월선원 지인 스님이 '사명당의 행적과 일본사행길'을,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사명 유정과 오대산 사고'를 발제했다. 이철헌 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원영상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양혜원 서울대 규장각 책임연구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함께하고 싶은 복지 파트너' 비전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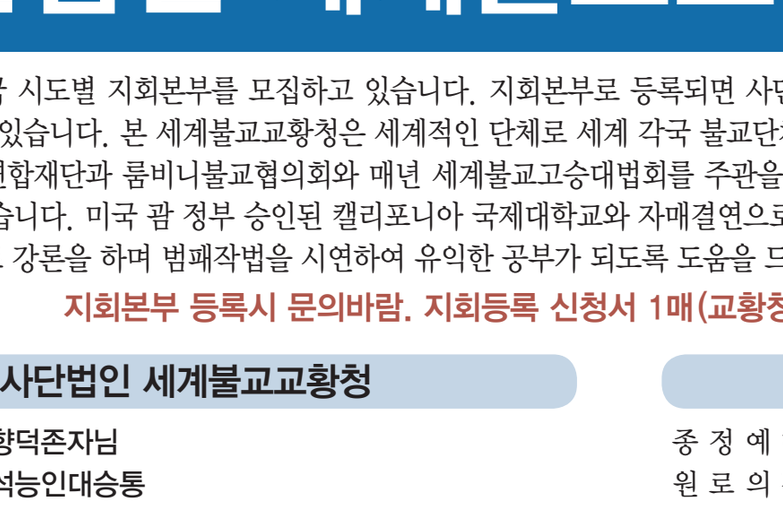
부산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9월 27일 개관 15주년 기념식

"함께하고 싶은 복지 파트너!"

사회복지법인 공덕향(대표이사 정창효)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27일 복지관 앞 마당에서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 파트너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본행사에 앞서 지역민이 동참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난타, 오카리나, 우쿠렐레, 주보 핸드벨 등) 발표와 국수잔치로 흥겨움을 더했다. 이어 노래자랑 및 트롯가수 초청 공연이 진행됐다. 본행사에서는 개회, 내빈소개, 시상식, 개회사, 축하인사, 미션 및 비젼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 경품 추천을 통해 기념품 쌀과 목공시계 등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며 축하나눔으로 마무리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27일 복지관 앞 마당에서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 파트너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정창효 공덕향 대표이사 및 이장호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신자, 이혜정, 박선희 공덕향 이사를 비롯해 박성훈 국회의원, 오태원 북구청장, 이종진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정창효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오늘 행사를 열게 되었다"며 "1만 600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의 짐을 나눠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은 2000년 11월 설립되어 부산 북구 지역민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북구 복지지역 1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재활에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모델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하사, 자연과 함께 한 산사 음악회

9월 26일, 마하사 경내



부산 천년고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부산 최초로 오직 자연의 소리로 진행하는 음악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마하사는 9월 26일 경내에서 '미끈한 음악회-늘'을 개최했다. 음악회는 음향, 조명 등 일체의 기계 장비 없이 진행되어 오직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사진〉

행사는 △행사 소개 △스님 인사말 △마하사합창단 공연 △첼로연주 △정가(正歌) △피아노 클래식 △첼로 클래식 △그레고리안 성가 △정가 △피아노 첼로 협연 순으로 이어졌다.

정산 스님은 "우리는 공연을 보고 들을 때 기계의 힘을 빌어 나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원래의 풍성한 원음의 맛을 알 수 없다. 오늘 이 행사는 조명 마이크 등 일체의 기계 장비 없이 진행되는 음악회로 고요하게 자연과 하나되고 우주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음악회다"며 "부산에서 최초로 자연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고 아울러 자신 내면의 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聯, 사명 대사 414주기 추모대재

9월 28일, 사명호국광장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9월 2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 대사 열반 제414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대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현장 정사, 신뇨엔 정경 국원 및 부산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이윤희 불교신도연합회장,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 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사명 성사님은 왜적의 칼에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나아가 백성을 구한 보살마하살이시다"며 "불제자로서 사명 성사님의 동체대비를 실천하여 이 나라와 인류가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대재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부산여성불자회는 이상훈 작가의 책 〈칼을 품고 슬퍼하다〉을 참가 대중에게 법공양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세상을 향기롭게, '우리쌀' 나눔 자비

9월 26일, 범어사서 전달식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와 NH저축은행(대표이사 오세윤)이 9월 26일 범어사 경내에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자비의 쌀 나눔은 NH저축은행의 청소년 아침밥먹기 및 우리쌀 소비촉진으로 농민과 전국민 건강돌보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한 쌀은 총 2000kg이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좋은 인연의 결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협의 중요 활동과 저희의 나눔이 연결돼 좋은 결실을 맺은게 의미있다. 앞으로도 저희 기관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전국 시도별 지회본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회본부로 등록되면 사단법인 단체로 법원등기번호가 부여되며 인감 및 등기등본 사용도 가능해져서 사단법인 단체로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세계적인 단체로 세계 각국 불교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부처님탄생지 룸비니 마하라니사찰을 세계불교교황청본부로 두고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과 룸비니불교협의회와 매년 세계불교고승대법회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미국불교협의회 초청으로 미국 백악관내에서 세계불교도대회를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괌 정부 승인된 캘리포니아 국제대학교와 자매결연으로 경영자과정과 명예박사를 추천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승가대학을 개설하여 종도들의 자질향상과 교학을 위주로 강론을 하며 범패작법을 시연하여 유익한 공부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회본부 등록시 문의바람. 지회등록 신청서 1매(교황청비치). 종도등록시 문의바람. 입종신청서1매(교황청비치)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대 법 황	향덕존자님		
교 황 청 장	석능인대승통		
승가회 총재	운붕대종사	회 장	대봉대종사
상 임 고 문	혜암대종사	고 문	영운 청암 효천 혜광 예전
상 임 이 사	국내 가입단체 30개 종단대표		
국외가입단체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일본 티벳 베트남 대만		
법 인 이 사	석능인 원산 혜현 청명 운봉 대원 정법		
특 임 이 사	인연 도법 봉화 호법 지산 도연 법성 범해		
룸비니평화대사	원산 봉화	룸비니삼장법사	법성
총 괄 본 부 장	청명	대위원	108명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 정 예 하	석능인대승통	사 정 원 장	인연스님	울산종무원장	인연스님
원 로 의 장	성법스님	호 계 원 장	혜현스님	경기종무원장	호산스님
중앙종회의장	무아스님	문 화 원 장	봉화스님	부산종무원장	두현스님
원 로 의 원	범아스님 법장스님	비 구 니 원 장	범해스님	총 무 부 장	도연스님
	효천스님 석담스님	국제승가대학장	법흥법사	재 무 부 장	법혜스님
	법화스님	경북종무원원장	여산스님	포 교 부 장	법성스님
총 무 원 장	원산스님	대구종무원장	도연스님	사 회 부 장	곡담스님
중앙선원장	혜광스님	충청종무원원장	청명스님	호 법 부 장	청명스님
교 육 원 장	상호스님	강원종무원장	지산스님	현 종도 128명	
포 교 원 장	도법스님	경남종무원장	혜현스님		

●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05. 3층 사단법인세계불교교황청 ● 청장실 053)321-5008 ● 팩스 053)321-6008. 010-9619-3900
● 종무실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이메일 : buddhasangha@naver.com ● 웹사이트 : www.monarchywbc.com